

오순절 후 스물한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1ST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10월 1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83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새 53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2 번 마태복음(Matthew) 5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골로새서 (Colossians) 4:2-6	이수진 집사
찬 양 Anthem	“내 주께로 돌아가라”	찬양대
설 교 Sermon	“전도를 위한 기도” (Pray for Evangelism)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 은혜임을”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85 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새 36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고,

근신함으로 기도하지도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죄악된 속성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한 믿음과 주님을 닮은 삶으로,

일상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4:7-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한글개역 **골4:3**)

“And pray for us, too, that God may open a door for our message, so that we may proclaim the mystery of Christ, for which I am in chains.” (NIV **Colossians 4: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17 (주일)	10/18 (월)	10/19 (화)	10/20 (수)	10/21 (목)	10/22 (금)	10/23 (토)
왕상	왕상20	왕상21	왕상22	왕하1	왕하2	왕하3	왕하4
본문	살전3 단2	살전4 단3	살전5 단4	살후1 단5	살후2 단6	살후3 단7	딤후1 단8
	시106	시107	시108,109	시110,111	시112,113	시114,115	시11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0/20 오후7:30)	“믿음, 은혜의 선물” (엡 2:1-10) – 김재우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 (10/23 오전6:30)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 56:1-13)

지난 주일(10/10) 말씀

전도의 8가지 습관 (3) – “참된 환대를 실천하십시오” (롬 12:9-18)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12:13)고 권면하는데, 여기에서 ‘손 대접’으로 번역된 헬라어 ‘필로크세니아’는 “외부인 또는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라”는 의미입니다. 즉, 환대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인류학자인 김현경 박사는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환대의 대상은 막연한 나그네나 손님 정도가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된 환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참된 환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우리는 의식적으로 환대에 힘써야(Practice Hospitality, Pursue Radical Welcome) 하고(롬12:13), 2)둘째,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며(롬12:15-16), 3)셋째,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똑같이 되갚아주지 않고,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롬 12:14,17-18).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미움과 증오의 고리를 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와 판단, 그리고 경계와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참된 환대(Radical Welcome)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